



tvN '아버지와 나' 제작발표회에서 가수 바비(왼쪽부터), 로이킴, 에릭남, 배우 김정훈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예진·김주혁, 8년만에 부부로 재회

‘비밀은 없다’ 내달 25일 개봉

배우 손예진과 김주혁이 8년 만에 영화에서 부부로 또 만났다. 이번에도 정상적이지만 않은 부부다.

영화 ‘비밀은 없다’ 제작보고회에서 이경미 감독과 손예진, 김주혁이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줬다.

“비밀은 없다”는 국회 입성을 노리는 신예 정치인의 딸이 선거를 보름 앞두고 실종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손예진은 사라진 딸의 행방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연홍 역을, 김주혁은 딸의 실종에도 선거에만 집중하는 종찬 역을 맡았다.

2008년 ‘아내가 결혼했다’에서 부부로 출연했던 둘이 이번 영화에서도 부부로 나왔다. ‘아내가 결혼했다’는 한 여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린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또 다시 결혼하고, 양쪽 남자 모두 이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이번 영화에서 연홍은 딸이 남긴 단서를 쫓는 사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진실을 맞닥뜨리며 혼란을 느끼는 인물로, 종찬은 점차 이성을 잃어가는 아내 앞에서 선거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손예진은 “무슨 인연인지, 만날 때마다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서...”라며 “이번에 또 하게 돼 반갑다”며 웃었다.

김주혁은 “장르 자체가 달라 새로웠고, 재미있었다”며 “아름답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와 호흡을 맞추게 돼 흔쾌히 출연하게 됐다”고 손예진과 재회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손예진 씨의 외모가 그때와 똑같은 것이 놀라웠다. 방부제다”고 덧붙였다. 손예진은 이에 “그때가 늙었다는 건가요?”라며 재치있는 말로 김주혁의 칭찬을 받아냈다.

이경미 감독은 “손예진 씨를 보면서 저 뒤에 뭔가 다른 것이, 광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제가 저런 모습을 보여줄 날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었다”며 캐스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주혁 씨는 배우로서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능력도 셀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외향적이면서 내성적인 면을 두루 갖춰 종찬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이번 ‘비밀은 없다’의 각본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데뷔작인 ‘미쓰 홍당무’(2008)의 제작자이기도 한 박찬욱 감독과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박 감독의 영화 ‘아가씨’가 다음달 2일에, 이 감독의 ‘비밀은 없다’는 다음달 25일에 각각 개봉해 두 영화의 흥행 경쟁이 불가피해 때문이다.

이 감독은 이에 대해 “서로 일정이 맞아 또 만나는 것은 운이 따라야 하는 것인데 제가 존경하고 인연이 깊은 분과 잇따라 개봉하는 것이 행복한 이벤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습뉴스

스타가족 예능, 이번엔 어색한父子 여행

“진부”vs“공감” 속 끝없는 변신... 방영 앞두고 시청자 유혹할지 관심

돌고 돌아 다시 가족이다. 한때 방송가를 점령했던 ‘육아 예능’의 인기가 사들해진 사이 ‘가족’이라는 진부하다면 진부한 소재를 새롭게 변주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속속 등장해 시청자를 유혹하고 있다.

최근엔 어느 정도 큰 자녀와 어느새 부모의 관계 회복이라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많은 이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여전한 힘을 자랑하는 두 육아 예능에 EBS TV ‘리얼극장’, 그리고 새로 시작한 tvN ‘아버지와 나’ 까지 방송사도 장르도 다르지만, 스타와 그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 변신에 변신...해도 해도 끝없는 가족 이야기 = 6년간 방송된 뒤 지난해 종영한 SBS ‘스타 주니어 쇼 아버지’를 시작으로 2014년엔 MBC TV ‘아빠! 어디가?’가 육아 예능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아빠! 어디가?’의 영향으로 시작된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TV ‘토요일이 좋다-오 마이 베이비’는 지금까지도 방송되고 있다.

육아를 넘어 가족의 소통과 대화를 다룬 프로그램이 바로 지난해 방송됐던 ‘아빠를 부탁해’ ‘위대한 유산’이다.

어색한 아버지와 딸 사이를 그려 중년 남성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던 ‘아빠를 부탁해’는 출연자가 구설에 오르면서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흠집이 갔다.

다. 또 고(故) 최진실의 아들 환희 군이 출연해 화제가 됐던 ‘위대한 유산’은 시청률 부진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어색한 여행을 그리는 tvN 리얼리티 예능 ‘아버지와 나’가 곧 방송을 시작하고, EBS 다큐 ‘리얼극장’이 장수하는 등 ‘스타의 가족’이라는 소재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시청자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아버지와 나’를 연출한 박희연 tvN PD는 27일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스타의 가족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스타와 그 가족에 자신을 대입하면서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비슷한 개념 이어져 ‘진부’ 불만...겉치기 출연도 = 조금씩 다른 옷을 입기는 하지만 스타와 그 가족을 통해 스타의 이면을 본다는 기본 개념은 같은 탓에 계속되는 스타의 가족 이야기가 진부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또 갓난아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송에 노출되고 사춘기 청소년이나 성인 자녀가 스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TV에 출연해 대를 이어 스타가 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버지와 나’ 제작발표회에서 나온 출연자들은 하나같이 처음에는 가족의 방송 출연을 말리고 싶었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들의 사생활을 다루려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방송을 통해 가족을 공개하려는 스타의 수는 한정적이다 보니 각기 다른 프로그램에 ‘겉치기 출연’하거나 시차를 두고 같은 내용이 방송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최근 MBC TV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가수 김수희-이순정 모녀는 지난해 3월 EBS ‘리얼극장’에도 출연한 바 있다. 스타였던 어머니와 외로운 딸,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딸을 보는 엄마의 심정 등을 담은 방송 내용도 비슷했다.

◇ 화려한 삶 뒤 평범한 모습...영원한 호기심 대상 = EBS ‘리얼극장’의 최남숙 CP는 “화려한 스타들이 가족과 함께 출연하게 되면 평상시 방송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소탈한 면일 수도 있고 삶의 어두운 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출연자로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될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경우 방송 후에도 서로 예민한 모습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지난 4월 한 방송인과 딸의 이야기가 전파를 탄 뒤 딸이 아버지가 한 말의 표현을 문제 삼아 이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갈등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사이의 날 선 말이 그대로 방송에 나오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부럽지만 한 삶을 사는 스타들이 사실은 같은 부분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감받는 느낌이나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최 CP는 강조했다.

TV 프로그램 30일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옥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1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뉴스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옥정 찰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12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화 조들호>(재)	00 MBC 정오 뉴스 20 제42회 전주 대서술놀이 전국대회 1~2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티워크 특선 <법정의 진실>(재) 55 별별가족(재)			55 TV블로그 폼지락
2	0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전국 TOP 10 가요쇼(재)
3	00 콘서트 필 (재) 50 안녕 우리말 55 튜닝생활체조	00 자동공부학습 위키2 30 TV유치원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동네스타 전국방송내보내기(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특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폼지락 20 일일드라마 <미녀의 성>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동네변화 조들호>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KBS 뉴스라인 40 KBS 결자 다큐멘터리 (재)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동상이몽 권철아 권철아
12	20 해외결자드라마 <닥터 후 시즌8>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45 스포츠 특선 MLB 핫토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 e 생활 영어	09:40 라이벌 토크 부모 <정리 좀 하고 살자!>
05:30 건강한 아침	10:30 한국기행(재)
05:40 성경시대 기능 한국어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라! 진동모터 부품 제조 김영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안세경의 김치 불고기와 마늘중추장>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11: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2:00 EBS 정오 뉴스
07:30 로보카 폴리	12:10 시대공간 <스토리 그곳-심야식당 그리고 동대문 삼촌>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0 지식채널 e
08:00 덩동명 유치원 1~3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45 코코코 다코	13:40 즐겨찾 수확 EBS MATH
09:00 캐니멀	
09:30 원더볼츠	
13:50 원더볼츠(재)	14: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피터래빗
15:35 꼬마기사 마이키	15:50 으랏차차 아이큐
16:00 캐니멀(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덩동명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1~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여행의 품격 1부 유랑별곡>	
21:30 한국기행 <여행의 품격 1부 유랑별곡>	
21:50 EBS 다큐 프라임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공간	
24:05 지식채널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0일 (음 4월 24일 壬子)

<p>子</p> <p>48년생 필연적이니만큼 각고의 노력을 요한다. 60년생 상호 관련되면서 의존하게 되리라. 72년생 오해로 인한 갈등이나 의심이 해소되는 상황이다. 84년생 두 번 다시는 만나기 힘든 절호의 기회이니 놓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2, 10</p>	<p>午</p> <p>42년생 그대로 두면 위험해서 아니 될 일이나 더 흔들리기 전에 속히 중심을 잡아라. 54년생 대단히 불리하니 일단 정지 하자. 66년생 심시일만의 원리로 진화해서 하리라. 78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노다. 행운의 숫자 : 05, 15</p>
<p>丑</p> <p>49년생 흐르는 물은 앞서기를 다루지 않는 법이다. 61년생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추측하지 마라. 73년생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85년생 절실히 기다리고 있던 것이 들어오겠다. 행운의 숫자 : 92, 03</p>	<p>未</p> <p>43년생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대목이다. 55년생 협조자와 방관자가 함께하는 입지이다. 67년생 대중 남걸 일이 아니니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대응하라. 79년생 상대의 말을 역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산이다. 행운의 숫자 : 06, 59</p>
<p>寅</p> <p>50년생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62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처음에 착신한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74년생 크게 인정받거나 수확할 수 있는 영광이 보인다. 86년생 오매불망하며 바라던 것이 나타나서 기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3, 80</p>	<p>申</p> <p>44년생 흥이 절로 나며 즐거움 일이 발생하는 기쁨이 보인다. 56년생 본격적인 상황이 임박했으니 만전을 기하라. 68년생 결과를 막상 열어보면 허망할 수다. 80년생 한 가지가 발목을 잡으면 서 곤혹스럽게 만든다. 행운의 숫자 : 94, 10</p>
<p>卯</p> <p>51년생 서두르면 실수하기 쉬운 날이니 의도적으로라도 천천히 행하라. 63년생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울러 퍼지는 경사가 보이니니라. 75년생 뜻밖의 일로 긴장하라. 87년생 근거 없는 낭설이나 풍문은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6, 12</p>	<p>酉</p> <p>45년생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둬라. 57년생 끝까지 다 들고 나면 병그레 웃음이 나올 것이다. 69년생 권고대로 행하면 행운을 잡을 수 있다. 81년생 어려움은 잠시뿐이니 인내하며 기다리자. 행운의 숫자 : 78, 69</p>
<p>辰</p> <p>40년생 비뚤어지려는 절대로 아니 된다. 52년생 과녁치 말고 현 태에 최선을 다하라. 64년생 청신호를 접하게 된다. 76년생 시야를 넓히면 많은 것을 바라 볼 수 있다. 88년생 상대의 충고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7, 49</p>	<p>戌</p> <p>46년생 민서를 제쳐놓고 가장 절실한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58년생 만만찮은 상대가 나타날 것이니 허점을 보이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70년생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것이 옳다. 82년생 긍정적이다. 행운의 숫자 : 67, 79</p>
<p>巳</p> <p>41년생 현재는 힘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알찬 경험이 될 것이다. 53년생 핵심을 잡자. 65년생 행운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77년생 소속의 이동수가 보이니 준비하라. 89년생 긴허 쓰이게 될 것이니 우선 행자 뒤라. 행운의 숫자 : 55, 18</p>	<p>亥</p> <p>47년생 주변인의 시각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을 가져라. 59년생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돌아서자마자 후회하게 될 것이다. 71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장담하는 것이 아니다. 83년생 신성한 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행운의 숫자 : 44, 7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